

눈을 감고 독서삼매경에 빠지다

글_허선

요즘 무슨 책 들으세요? 요즘 미국에서는 MP3나 IPOD와 같은 오디오 테크놀로지가 점차 발달되고 보편화되면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과거, 듣는 책은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 또는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교육용 책이나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책을 펼치고 여유 있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겐 일상 속에서 음악을 듣듯 책을 듣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은 미국 출판계의 새로운 판로를 제시하고 있다.

✦ 오디오북 시장

작년 미국 오디오출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디오북 시장규모는 대략 8억 달러로 추정되며, 오디오북의 판매는 소매, 도매는 물론 도서관 구매까지 증가 추세다. 소매와 도매는 14퍼센트, 도서관구매는 7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최근 라이브러리저널의 조사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일반 오디오북은 13.5퍼센트, 어린이 오디오북은 10.7퍼센트 상승했고, 도서관의 오디오 구매예산도 일반 오디오북은 6.1퍼센트, 어린이오디오북은 4.8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오디오북의 커다란 변화는 오디오북의 판매가 기존 카세트테이프, CD 포맷에서 다운로드 판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운로드 판매는 오디오북 시장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오디오북의 선두주자인 오더블 주식회사의 경우, 2001년 오디오북 다운로드 판매가 500만 달러에서 2002년 1,000만 달러, 2003년에는 1,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오디오북 관련산업과의 공조

이러한 놀라운 판매 성장에 힘입어 오디오북 시장은 관련기술업계와 함께 표준양식 마련 및 관련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오디오출판계와 전자제품산업계는 MP3, WDA-CD, 다운로드 오디오 파일 등 다양한 오디오

포맷과 호환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설립했다. 이 표준양식은 출판사와 전자제품회사들 모두 오디오북을 듣는 데 가장 필요한 자동북마킹(Autobookmarking)이라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제품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음악 재생을 위한 장치를 개발해 왔으나, 이번에 새롭게 설립된 표준양식은 오디오북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잡지사, 출판사들도 오디오북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있다. 얼마 전 저명한 잡지 <뉴욕커>와 로맨스 여성소설로 유명한 할리퀸 출판사는 오디오북 오더블 주식회사와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인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잡지 <뉴욕커>는 매주 수요일 다양한 기사들을 디지털 오디오로 제공하는데 소설, 비평 등 잡지기사들을 수백만의 디지털 오디오 청취자에게 전달한다. 각 기사는 <뉴욕커> 편집시스템의 협조 아래 선택되며 선택된 기사는 전 분량이 읽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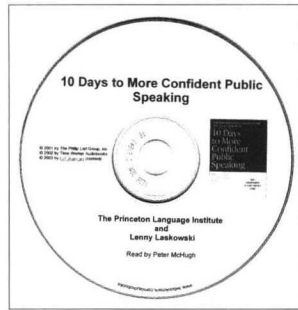
로맨스 시리즈와 여성소설분야의 선두주자인 할리퀸 출판사는 마케팅과 콘텐츠 라이선싱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오더블 주식회사는 할리퀸의 로맨스 여성소설 타이틀을 오디오북으로 전환시키고 디지털로 유통시키게 되는데 이를 위해 로맨스 여성소설의 콘텐츠를 현대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제작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 오디오북의 트렌드

오디오북의 트렌드는 오디오북이 이미 출판된 장르 대부분을 다루고 있어 무엇보다 기존의 출판 경향을 반영하고 있고, 오디오북 시장 확대에 대량판매되는 타이틀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해리포터' 시리즈나 《다빈치 코드》와 같은 블록버스터들은 오디오북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1996년에는 17만 5,000부 정도 팔린 타이틀이 고작 29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7만 5,000부~19만 9,000부 팔린 타이틀이 200개가 넘고, 20만부 이상 팔린 타이틀은 54개나 된다.

또한 과거 베스트셀러였던 재고도서와 자립에 관한 도서의 선전이 눈여겨볼 만하다. 스티븐 코베이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오디오북. 최근 오디오출판계와 전자제품산업계는 MP3, WDA-CD, 다운로드 오디오 파일 등 다양한 오디오 포맷과 호환될 수 있는 표준양식을 만들어 오디오 북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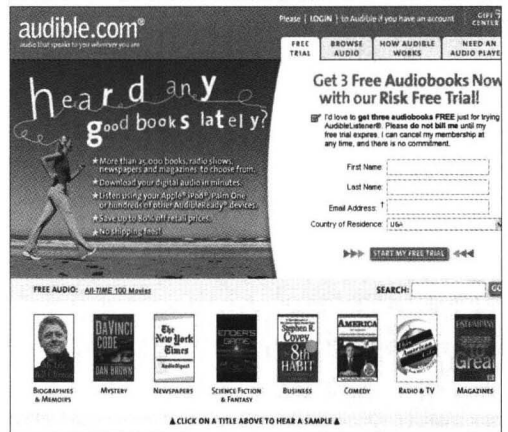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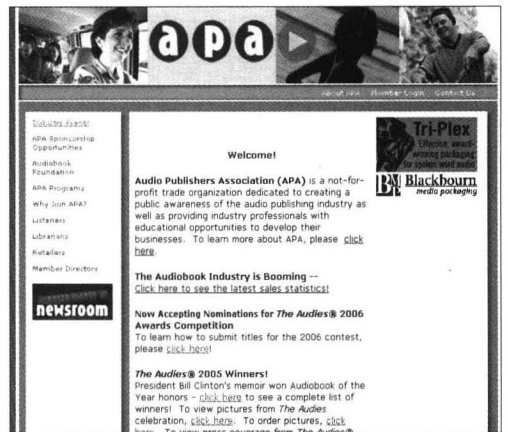


습관》은 170만 부가 판매되었고,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120만 부가 판매되었다. 필립 맥그로의 《자신 문제들 Self Matters》나 《인생전략들 Life Strategies》과 같은 자기치유에 관한 책은 20만 부 정도 판매되었다. 유명인사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한 자서전이나 그라삼, 클렌시와 같은 브랜드 네임 소설들의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여름 출간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서전 《나의 인생 My life》의 오디오북은 클린턴 자신이 직접 녹음해 화제를 몰고 왔으며 출시한 첫날부터 3만 5,000부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 오디오북 업계의 노력

이러한 많은 독자들과 출판업계의 관심에 오디오출판협회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오디오북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오디오북의 달'은 오디오북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 도서관, 서점, 유명인사가 모두 참가한다. 오디오북을 홍보하고 알리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오디오북 당첨 캠페인과 서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더 오디오북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되는 오디오북 샘플 프로그램, 좀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오디오북을 빌려보도록 장려하는 캠페인 등을 통하여 오디오북의 홍보에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디오북'이라는 업체가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시작으로 꾸준히 오디오북을 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디오북은 우리 출판계에는 낯선 장르고 시장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 유명 연예인들이 녹음한 낭송집이나 수필집이 오디오북의 형태를 띠고 시중에 나온다. 물론 미국적 상황과 우리는 많이 다르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을 멀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디오북은 음악처럼 쉽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로 출판계가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인 것 같다. 어서 빨리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독서삼매경에 빠지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민**



미국 오디오북 업체 홈페이지. 디지털 오디오북의 선두주자인 오더블 주식회사의 경우, 2001년 오디오북 다운로드 판매가 500만 달러에서 2002년 1,000만 달러, 2003년에는 1,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 오디오북 전문업체 '오디오북'. 이 외에도 각 출판사에서 필요에 따라 오디오북 형태로 출판을 하고 있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학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www.galleryjinsun.com을 운영하고 있다.